광주독립영화제 '무등에서 꼬뮌으로'

7~9일…개막작 '풀이 눕는다' 외 총 31편
무료 진행…작품 상영후 관객과의 대화도

'2018 광주독립영화제(집행위원장 최성욱)'가 '무등에서 꼬뮌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광주독립영화관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광주독립영화제는 광주에서 창작된 독립영화를 한데 모으고, 지역 감독들의 창작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미투운동, 임금 격차, 젠더감수성 등 올해는 유난히 사회 각계에서 평등을 외치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왔다. 또, 광주에서는 최초로 퀴어(성소수자를 지칭하는 포괄적 단어)축제가 올해 열리며 소수자 인권을 대변하기도 했다.

이에 광주독립영화제는 차별과 계급이 없는 것을 지향하는 '무등'과 반목과 아픔을 보듬어 안는 공동체의 열망을 담은 '꼬뮌'을 함께 연결시켜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개·폐막작은 이번 영화제의 주제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김경자 감독의 '풀이 눕는다'와 '5월 이야기'가 선정됐다.

'풀이 눕는다'는 박기순 열사의 행적을 지인들의 입을 통해 들어보는 작품이다. 박기순 열사는 대학생으로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들불야학'에서 노동자들과 함께한 선구적 노동운동가였다. 하지만 노동운동에 집념을 불태우던 박기순 열사는 정작 자신의 자취방에 스며든 연타가스에 횡사하고 만다. 이후 '들불야학'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주도적 역할을 하며 고인의 정신을 이어나갔다. 김경자 감독은 역사가 주목하지 않았던 고인을 추적하며 여성의 시선으로 역사의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영화 '국광교회'

'5월 이야기'는 모현신 감독의 '국광교회'와 오재형 감독의 '봄날'이 소개된다.

'국광교회'는 추교수가 자신의 조교(여성)를 성추행한 학과장을 단죄하지 않고 이를 덮으려는 것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학살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았던 주변인들의 행동을 결부시키며 불의에 적극적으로 대항할 것을 조용히 주문하고 있는 영화다.

'봄날'은 무용수들의 몸짓, 수화통역사의 손짓, 그리고 때론 고요하게 멈춰있고 때론 빠르게 흐르는 광주의 거리가 주인공이다.

다큐멘터리 초청작이면서 화제작으로 주목받고 있는 강상우 감독의 '김군' 또한 광주의 5월을 통해 이번 영화제 주제를 표현했다. 1980년 5월 광주의 복판에서 촬영된 흑백사진 속의 한 무장 시민군을 추적하는 이 작품은 사진 속 시민군이 신군부를 옹호하는 자들에 의해 광주민중항쟁을 배후에서 주동한 북한군으로 몰리게 된다. 이른바 '광수 1호'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영화는 사진 속 청년의 행방을 추적한다. 100명이 넘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작품을 완성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총 31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광주1318'에서는 광주 지역 청소년 영화를 만날 수 있다. 문우림 감독의 '화양연화'를 포함한 다섯 편이 상영된다.

특히, '다큐멘터리 신작선'에서 무려 12편의 작품이 상영되는 등 광주는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강세를 보였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세미다큐 프로젝트를 통해 완성된 박지영 감독의 '우리들의 저녁식사' 등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영화와 퍼포먼스 아티스트인 김광철 작가를 기록한 백종록 감독의 '보더리스: 그와나'와 영화인 조대영씨의 일상을 담아내고 있는 최성욱 감독의 '호모 시네마쿠스'도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단편영화 신작선'에서는 해년 마다 신작을 들고 광주독립영화제를 방문하고 있는 송원재 감독의 '죽은 시간', 유명상 감독의 '결혼은 하셨는지', 윤수안 감독의 '너에게로 가는 길' 등의 신작이 공개된다.

북구 중흥동 주민들과 광산구 본량동 주민들이 제작한 '봉사와'과 '소원꽃'도 '마을영화 신작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영화제는 모두 무료로 상영되며, 전 작품 상영 후에는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이보람 기자

광주 전업예술인 월평균 소득 152만원

고용보험 미가입 84.6%…사회안전망 확충 시급

광주지역 예술인들의 수입 등 복지 수준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업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84.6%에 달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문화재단이 3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주최한 예술인 복지지원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박금장 공간전략연구소 연구원은 광주 예술인 415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 중 전업 예술인의 비율은 21.9%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은 부업 등 겸업을 한다는 의미다.

가구당 총소득은 월평균 197만5,000원 수준으로 전업 예술인이 152만5,000원, 비전업 겸업 예술인은 212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국단위 조사에서 예술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 390만3,000원의 절반에 그쳤다.

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은 전업 예술인이 121만4,000원, 비전업 겸업 예술인이 62만원이었다.

비전업 겸업 예술인의 다른 일자리 고용형태는 기간제 등 비정규직이 41.4%, 무급가족종사자가 26.5%, 기타 자영업이 25.9%였다.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은 7.0%로 매우 낮았다.

체결한 계약의 79.3%는 서면계약이고 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적용률은 27.3%에 그쳤다.

4대 보험 가입률은 각각 국민연금 37.4%, 건강보험 100%, 산재보험 9.9%, 고용보험 9.6% 등으로 공적연금과 고용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업 예술인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률은 46.2%,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84.6%에 달해 전업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예술인 복지실태 인식과 관련해 복지실태 만족도는 94.5%가 불만족이라고 응답했다.

복지과제별 중요도와 관련해 실업 후 생계(90.6%), 고용상태(87.7%), 교육훈련(87.7%) 등의 순으로 답했다.

제시된 복지과제 중 실업 후 생계(90.1%), 노후대비(89.4%), 교육훈련(87.3%), 고용상태(87.2%) 등의 순으로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연합뉴스

박인선 '두개의 영역'

소통·협업 통한 현대미술 실험

광주-필리핀 바콜로드 작가들 공동창작 작품전
내년 1월 20일까지 필리핀 오렌지 프로젝트서

독립큐레이터 그룹 오버랩(OverLab)의 레지던시 참여작가들이 필리핀 바콜로드 시에 위치한 오렌지 프로젝트에서 'Cycle 003 : Balance'라는 주제의 전시를 열고 있다.

오버랩은 2016년부터 기획·운영한 공동창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8월부터 광주와 필리핀 바콜로드 시에서 각각 2개월간 거주하며 총 4개월간의 레지던시를 진행했다.

레지던시에 참여한 김경란, 박인선, 연정, 마니 몬텔리바노, 에이손 발데비아 등 5명의 예술가들은 공동창작 설치작품 1점과 기존장르에서 탈피한 실험적인 개인 작품 5점을 내년 1월 20일까지 선보인다.

공동 창작작품 '행복한 장난감(Happy Toy)'은 유아용 모빌의 형태에서 착안해 협업·제작된 키네틱 설치작품이다. 일종의 성인용 모빌로 어떻게 우리 사회가 균형을 이루는지, 어떻게 개개인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도구를 통해 행복을 유지하는지, 개개인의 선택들이 사회에서 불안정, 불평등, 불균형으로 어떻게 요약해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킨다. 사회 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들의 관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서로 다른 역사의 '차이'를 반영하며 '개성'의 원칙을 강조한다.

에이손 발데비아 '상호작용 시리즈'

마니 몬텔리바노 작가는 '두코생존(Dukot Surviva)'이라는 제목의 설치작품을 통해 진화론을 포괄한 인류문명에 대한 태도적 질문을 제기한다.

에이손 발데비아 작가의 '상호작용 시리즈(Reciprocity series)'는 균형잡힌 세상을 만들거나 파괴하는 인간의 상징적 도구로써 손의 이미지를 차용해 그 가치와 쓸모에 대한 고민을 공유한다.

김경란 작가의 '순환하는(Circulating)'은 '세상은 끝과 시작 사이에서 순환한다'라는 기존 작업관에서 출발해 확장된 개념으로, 균형 잡힌 순환에 대한 작가적 해석을 통해 인간의 욕구와 사회적 관계 그리고 태도에 대한 메시지를 담는다.

연정 작가의 '얼굴의 공명들(The resonance of faces)'은 두 에너지의 균형 잡힌 파장이라는 개념에 기초해 필리핀 바콜로드 지역과 역사성에 주목한 비디오 설치작품이다.

박인선 작가의 '두 개의 영역(Two areas)'은 두 도시가 기억하는 역사와 상처에 대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이를 기억하고 극복해 가는 현재적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두 도시의 시공간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낸다. /이연수 기자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스크린골프장, 레스토랑 등등)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